

# 국힘 새 비대위원장에게 광주 출신 박주선 물망

### 민주당 출신... 윤석열 대통령 지지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 맡기도 당내 인사 나경원 전 의원 등 거론 주호영 "새 술은 새 부대에" 고사

국민의힘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에 외부 인사로 광주·전남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주선 전 국회의장과 당내 인사로는 4선 출신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6일 국민의힘은 전날 당헌·당규 정비 절차를 마친 데 이어 비대위원장 물색 작업 마무리에 들어가는 등 추석 명절 전에 새 비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특히, 새로운 비대위원장에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 영입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인사를 선인하게 되면 내부 갈등이 해소되기도 여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선수별 의원모임을 갖고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 등 당의 진로에 대한 막판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외부에서는 새로운 비대위원장에 법조인 출신으로 광주와 전남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주선 전 국회의장이 거론되고 있다. 박 전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선후배이자 서울대 법대 동창으로 신뢰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전 부의장의 비대위원장 부상 배경을 놓고 여권 수뇌부 간에 어느 정도 물 밑 조율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출신인 박 전 부의장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뒤,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또 선대위 동서화합미래위원

장도 맡아 윤 후보의 '서진전략'을 뒷받침했으며,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또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전 부의장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이 발탁한 인사로, 오랫동안 호남 기반의 민주당 계열 정당 소속으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영남 기반인 국민의힘과 유기적 화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무늬만 또 다른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 될 수 있다는 불편한 시선도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박 전 부의장 카드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박 전 부의장의 카드는 국민 통합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당내 혼란 상황을 마무리 짓고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번 비대를 이끌었던 주호영 의원의 비대위원장 재선임을 유력하게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막판 당 안팎에서 회의론이 분출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자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는 게 좋겠다고 당에 건의 드렸으며 전격적으로 비대위원장 고사 선언을 하면서 결국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인사로 4선 출신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 경남지사를 지낸 3선의 김태호 의원과 정치 경력 최고참 격인 4선의 홍문표 의원 등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원내대표 후보군인 4선의 김학용·윤상현 의원, 3선의 김상훈·유재욱·조해진 의원 가운데 한 명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비대위원장 선임과 원내대표 선거 '교동정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태풍 피해 점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있지만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감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난 5일 전국위와 삼임전국위를 연달아 열고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마친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삼임전국위를 통해 비대위원장·비대위원 인선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르면 7일 비대위원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국토부 내년도 균형발전 예산 대폭 삭감

### 2조1900억...1조2000억 줄여

### 김두관 "尹정부 증액 방침과 상반"

내년도 예산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균형발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은 2조1900억 원 수준이다. 올해 3조4100억 원에 비해 1조2000억 원이 감액된 수치다.

균특회계란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 지원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국토부의 내년도 균특회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지역자율계정에서 교통 및 물류 부문에서 2천억 원 이상 삭감됐고, 지역자율계정에서도 지역개발·도시정책 등 항목에서 지난해 대비 8천억

원 가까운 예산이 줄었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균형발전을 위해 균특회계 증액 방침을 밝힌 윤석열 정부 기조와도 상반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균특회계를 국가 재정에 비례해 확대하겠다"며 "인기 내 균특회계 비중을 현재 1.8%에서 5%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균특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이라는 항목을 통해 "균특회계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들과 약속해 내놓은 국정과제의 링크도 마르기 전 공약을 뒤집어버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대통령실 정무1·2비서관 전희경·장경상 내정

### 이르면 오늘 인선 공식 발표

대통령실 정무1·2비서관에 전희경 전 의원과 장경상 국가경쟁연구원 사무국장이 각각 최종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사람을 임명하기로 했다"며 "이르

면 내일 인선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직원들과 상견례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유임된 가운데 최근 대규모 인적 개편으로 공석이 된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과 행정관 자리도 신임 비서관들과 논의를 거쳐 조만간 충원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완화 법안 법사위 통과

### 비과세 기준선 상향은 불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부담을 줄이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추석 이전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됐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

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천명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

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기본 공제 금액)을 현재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추석 연휴 이전에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과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7일)은 아무래도 (법안 처리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여야 간사 간에 계속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며 "오늘 충분히 얘기를 좀 더 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적시장 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승수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승수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현재시공모습

스틸방수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